

(첨부)

일본 경제 주간 동향(5.17~5.23)

1 경제일반

1. 2030년도 新전원구성 관련

- 日 정부가 2021년 여름 각의결정을 목표로 전문가 회의 등 논의를 추진중인 ‘에너지기본계획’ 과 관련해, 동 계획의 골자가 될 2030년도 新전원구성 조율 현황은 아래와 같음.
 - (원전, 현행 목표 유지) 기존과 마찬가지로 20~22%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이나, 가동 중인 원전은 9기로,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5기 가동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
 - 한편, 경산성 추산 결과 기존 원전이 모두 가동되더라도 2050년 시점 필요 전력의 불과 10% 가량만을 충당할 수 있는바, 2050년 탈탄소화를 감안해 2030년 전원구성을 확실시하기 위해서라도 新안전기준에 대응한 원전의 재가동뿐 아니라 교체 및 신증설, 노후시설 활용에도 나설 필요
 - 단, 가지야마 경산대신은 5.14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‘열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, 현재로서는 신증설, 교체 등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’ 는 입장 표명
 - (재생에너지 2배 확대)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46% 감축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율은 현행 22~24%에서 36~38%로 상향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
 - 단, 주력 분야인 태양광 발전시설 적지(適地) 부족 문제 및 해상풍력 발전 기술 확립 등 과제 산적
 - (화력발전 축소) 세계적으로도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화력발전은 기존

약 56%에서 약 40%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

2. 반도체 산업 지원 위한 자민당 의원연맹 출범 예정

- 세계적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반도체 산업 재흥(再興)에 대해 논의하는 자민당 의원 연맹 ‘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(가칭)’ 이 가까운 시일 내 출범할 예정임.
 - 동 연맹은 자민당 新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과장을 맡고 있는 아마리 아키라 前경제재생대신의 주도 하에 아베 신조 前총리, 아소 다로 부총리 兼 재무대신 등이 참여하여 ‘경제안보’ 의 핵심이 될 반도체 산업 지원을 촉진할 계획
 - 설립 취의서에는 ‘반도체를 제패하는 자가 세계를 제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’ 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, 경제안보 관점에서의 불가결성을 들어 ‘동맹국과의 전략적 공급망 연계 도모가 최대 과제’ 라고 지적
- 디지털 혁명의 진전에 따라 기술적 기반이 될 반도체의 확보는 각국의 경제안보에 직결되며, 관련 시장은 향후에도 점진적 성장이 예상됨.

3. 2021년 1/4분기 GDP 성장률(속보치) 발표(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)

- (언론 평가) ‘21년 1/4분기 GDP 성장률 1차 속보치(실질, 계절조정치)는 실질 ▲1.3% (연율 ▲5.1)로,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개인소비 침체의 영향으로 3분기 만에 마이너스 성장 전환
 - 1/4분기는 日 정부가 2차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한 시기로, 1차 선언이 발령된 ‘20년 2/4분기에 크게 침체했던 日 경제가 3/4분기, 4/4분기에 연속 플러스 성장 보이며 회복 경향에 있었으나,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됨.

- 내수의 주축이자 GDP의 과반을 차지하는 개인소비는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외출자제 및 음식점 시간단축 영업 등으로 서비스 소비가 침체하며 전기 대비 ▲1.4% 줄어 3분기 만에 감소 기록
- 내수의 또 다른 축인 민간 설비투자는 △통신기기 및 자동차 부문에서의 감소 △지난해 4/4분기(4.3% 증가)의 반동 감소 등을 배경으로 전기 대비 ▲1.4% 감소해 2분기 만에 마이너스 전환
- 주택투자는 1.1% 증가로 전기 대비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, 공공투자는 ▲1.1% 감소
- 정부소비는 △의료기관의 진찰 감소로 인한 정부부담 의료비 감소 △日 정부의 관광수요 환기책 ‘Go To 트래블’의 일시 중단에 따른 정부 부담분 감소 등의 영향으로 ▲1.8% 감소
- 한편, 수출은 지난해 4/4분기(11.7%)보다 플러스 폭은 축소됐지만 2.3% 증가하며, 3분기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으며, 수입은 의약품 등이 증가하며 4.0%로 2분기 연속 증가
- **(2020년도 GDP 성장률)** 또한 동일 발표한 2020년도 GDP 속보치는 전년도 대비 ▲4.6%로, 리먼 사태가 있던 ‘08년도의 하락폭(▲3.6%)을 상회하며 통계가 남아있는 1956년 이래 최악의 침체를 기록하였으며, 코로나 사태로 개인소비가 크게 침체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.
- 실질 GDP의 마이너스 성장은 미중 무역마찰 및 소비세율 10%로의 인상이 영향을 준 ‘19년도에 이어 2년 연속으로, 애초에 제동이 걸려 있던 日 국내 경기에 코로나 사태가 재차 타격을 줌(넛케이).
- 2020년도 개인소비는 전년도 대비 ▲6.0% 감소하며 과거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으며, 이는 연내 두 번의 긴급사태선언에 따른 외출 자제 및 숙박·음식업의 점포 휴업·영업시간 단축, 이벤트 중지의 확대로 여행, 외식, 교통 등 서비스 소비가 격감(激減)한 영향이 큼.
- 기업의 설비투자는 해외의 락다운(도시봉쇄)의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, 실적 악화로 인한 투자 보류 등을 배경으로 ▲6.9% 감소하며 11년

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으며, 주택투자는 ▲7.1% 감소

- 세계적인 감염 확산으로 외수도 정체하며 수출은 ▲10.4% 감소
- **(향후 전망)** ‘21년 2/4분기는 日 정부가 4월에 발령한 3차 긴급사태선언의 기간 연장 및 대상지역 확대의 영향으로 개인소비의 침체가 상정되며, 마이너스 성장이 될 가능성 고조(요미우리)
-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대신은 5.18 기자회견에서 ‘수출의 증가 기조 등 경제에 잠재적인 회복력이 있다. 한편 긴급사태선언 발령의 영향은 충분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’는 견해 표명
- 한편, 향후 경제의 회복은 감염 동향 및 백신보급 상황 등에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는바, BNP파리바증권의 고노 류타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‘의료능력의 저변 강화(底上げ)가 실현되지 않아,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 감염자가 증가해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음. 2/4분기 또한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, 백신(접종)의 지연이 우려의 근거’라고 지적

4. 후생성, ‘의약품 산업 비전’ 재검토 예정

- **(지침 재검토)** 日 후생노동성은 2013년 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문제점과 방향을 정리한 지침인 ‘의약품 산업 비전’을 이르면 2021년 여름 중 8년만에 재검토할 예정임.
- 후생성은 국내 제약단체 및 연구기관 등과 대화를 통해 지침 개정 준비를 진행해왔으며, 특히 국내 기업들이 취약한 바이오 의약품 분야 내 경쟁력
-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신약은 기존의 저분자 의약품으로는 치료가 어려운 암이나 난치병 치료 및 감염증 대책 면에서도 고효과 기대
- **(日 바이오 취약이 배경)** 후생노동성은 2013년도 지침 발행 당시에도

‘바이오 의약품 개발은 급선무’ 라고 명기했으나, 일본 바이오 신약 산업의 취약점과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.

- 세계 10대 제약회사의 최근 20년간 주력 상품은 바이오 의약품으로, 매출 상위 10개 품목의 50% 이상을 차지하나 미국산 바이오 의약품은 매출 상위* 45개 품목 중 19개 품목에 달하는 반면 **일본은 2개 품목**에 그침.

* 日 의약산업정책연구소 발췌

□ **(관계자 우려)** 관계자들은 국가가 약의 가격을 결정하는 약가(藥價) 개정 시스템이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.

- 日 정부는 2년에 1회로 약가를 개정해왔으나 고령화 진행에 따른 사회 보장비용 확보를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실시할 예정으로, 日 제약 단체는 5.17 후생성과의 의견 교환회에서 특허 기간 중일 경우에는 신약 가격을 동결토록 요청하는 등 우려 표시

5. 日 정부 백신 접종증명서 발행 검토 개시

□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발행을 위한 검토를 시작하는 바, 가토 관방장관이 수장을 맡는 부처 횡단적 팀*을 출범시켜 제도 수립에 착수할 방침임.

* 후생노동성, 외무성, 법무성 및 내각관방 IT 종합전략실 담당자 소집

- 국제표준에 맞는 규격을 채용할 방침으로, 비행기 탑승시 및 입국심사, 해외 숙박시 제시 등을 상정하여, 종이 증명서를 우선 발행한 이후 스마트폰 앱에서 관리 가능한 온라인 증명서로 이행시키는 절차를 검토 중
- 비즈니스 방문객 외에 유학 등으로 해외에 도항하는 일본인, 일본 체재 중 모국에 돌아가는 외국인이 이용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, 관련 데이터는 백신 접종정보를 일원 관리하는 ‘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(VRS)’ 와 연동시킬 계획

6. 예비비에서 백신 구입비 5,120억엔 지출

□ 日 정부는 5.14(금) 각의에서 코로나19 백신 구입 비용으로 2021년도 예산 예비비에서 5,120억엔 지출을 결정함.

- 2021년도 예산에 코로나 대책을 위해 5조엔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으며, 잔액 예비비는 3조 9,880억엔
- 다무라 후생대신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동 예비비를 백신 2억 5,000만회분 구입에 충당할 것임을 밝혔으며, 내역은 화이자사 백신 5,000만회, 노바백스사 백신 1억5,000만회

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

7. 日 내각부 2021.4월 경기관찰조사 결과(체감경기 3개월 만에 악화)

□ **(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)**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(계절조정치)가 전월대비 -9.9 하락한 39.1로 집계, 3개월 만에 악화

※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,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

- **가계동향(-11.9)** · 기업동향(-5.0) · 고용(-7.5) 관련 지수 모두 악화
- 2~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-8.1 하락한 41.7을 기록, 2개월 연속 악화
- **(경기판단)** 내각부는 경기 기초 관련 ‘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어려움이 남아 있는 가운데, 회복에 약세가 보임’ 으로 판단을 하향 수정했으며, 향후 전망 관련해서는 ‘감염증 동향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음’ 이

라는 인식을 밝힘.

- (인론 평가) 4월 경기판단지수는 도쿄·오사카 등 4개 도부현(都府縣)에 발령된 3차 긴급사태선언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악화했으며, 하락 폭은 '20.3월(-13.0) 이래 최대 규모(-9.9)

8. 재무성 2021.4월 무역통계(속보치)

1. 총액

- 5.20 재무성이 발표한 '21.4월 무역통계(속보, 통관기준)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2,553억 엔 흑자를 기록(3개월 연속 흑자)
- 對美 자동차 및 對中 반도체 등 제조장치 수출이 대폭 증가하며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38.0% 증가한 7조 1,811억 엔을 기록, 2010년 이래 최대 증가율
 - ※수출증감률 ('20.4월) ▲21.9% → (5월) ▲28.3% → (6월) ▲26.2% → (7월) ▲19.2% → (8월) ▲14.8% → (9월) ▲4.9% → (10월) ▲0.2% → (11월) ▲4.2% → (12월) 2.0% → ('21.1월) 6.4% → (2월) ▲4.5% → (3월) 16.1% → (4월) 38.0%
- 코로나19의 세계적인 감염 확산으로 '20.4월은 수출 총액이 약 5조 2,000억 엔까지 감소한바 있어 그 반동 효과도 있으나, 감염확대의 영향을 받기 전인 '19.4월과 비교해도 7.8% 증가하였으며 4월 수출액으로는 과거 최대 수준
- 수입은 원유, 석유제품, 비철금속 등이 증가하여 전년 동월 대비 12.8% 증가한 6조 9,258억 엔을 기록
- 원유는 전년 동월 대비 38.9% 증가하였으나 2년 전과 비교해 약 20% 감소

[2021.4월 무역수지]

| | | | | |
|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수출 | 금 액 | 7조 1,811억 엔 | + 38.0% | 2개월 연속 증가 |
| | 물량지수 | 108.1 | + 28.4% | 2개월 연속 증가 |
| 수입 | 금 액 | 6조 9,258억 엔 | + 12.8% | 3개월 연속 증가 |
| | 물량지수 | 107.8 | + 2.4% | 3개월 연속 증가 |
| 무역수지 | 금 액 | 2,553억 엔 | - | 3개월 연속 흑자 |

* 증감 여부 및 증감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

2. 지역별

(對미국)

- 수출은 자동차(+117.6%), 자동차 부품품(+78.3%), 원동기(+44.1%) 등이 증가하였고, 수입은 곡물류(+59.7%), 비철금속광(+188.0%), 액화석유가스(+26.1%) 등이 증가한 반면, 유기화합물(▲35.5%), 원유(▲65.1%) 등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5,377억 엔의 흑자(2개월 연속 증가)
- 對美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5.1% 증가한 1조 2,761억 엔으로, 자동차 수출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자동차부품도 눈에 띄게 증가
- 지난 3월 1.9조 달러 규모의 경제대책이 결정됨에 따라 현금급부 등 가계 지원이 시작된 효과로 보이며 2년 전과 비교하면 10% 감소한 수준

[對미국]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수출 | 1조 2,761억 엔 | + 45.1% | 2개월 연속 증가 |
| 수입 | 7,384억 엔 | + 5.8% | 2개월 연속 증가 |
| 무역수지 | 5,377억 엔 | + 196.0% | 2개월 연속 흑자 |

(對중국)

-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(+132.1%), 자동차(+80.1%), 원료품(138.8%) 등이 증가하였고, 수입은 식물용 실·섬유제품(▲65.7%), 의류·동 부품품(▲10.6%),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(▲5.7%) 등이 감소한 반면, 통신기(+16.9%), 비철금속(+50.9%), 석유제품(+311.4%) 등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▲1.660억 엔

의 적자 (2개월 만에 적자)

- 對中 수출은 1조 5,834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33.9% 증가하였으며 2년 전과 비교해도 약 30% 증가

· 중국이 코로나19의 만연을 억제하며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의 영향이 크며 반도체 제조장치 및 자동차 수출이 대폭 증가함.

[對중국]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수출 | 1조 5,834억 엔 | + 33.9% | 10개월 연속 증가 |
| 수입 | 1조 7,494억 엔 | + 0.7% | 3개월 연속 증가 |
| 무역수지 | ▲1,660억 엔 | ▲70.0% | 2개월 만에 적자 |

(對아시아)

○ 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(+93.4%), 자동차(+77.9%), 원료품(+92.0%) 등이 증가하였고, 수입은 직물용 실·섬유제품(▲55.0%) 등이 감소한 반면, 반도체 등 전자제품(+27.6%), 석유제품(+132.4%), 통신기(+18.5%) 등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6,741억 엔의 흑자(12개월 연속 흑자)

- 對한국 수출은 7개월 연속 증가, 수입은 2개월 연속 증가

※ 수출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: (6월) ▲15.1% → (7월) ▲14.1% → (8월) ▲13.8% → (9월) ▲1.1% → (10월) 9.0% → (11월) 3.1% → (12월) 20.8% → (1월) 15.5% → (2월) 2.1% → (3월) 11.2% → (4월) 25.6%

- 對한국 무역수지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 +34.9% 증가한 2,234억 엔 흑자 기록

[對아시아]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수출 | 4조 1,562억 엔 | + 32.7% | 2개월 연속 증가 |
| 수입 | 3조 4,822억 엔 | + 10.2% | 3개월 연속 증가 |
| 무역수지 | 6,741억 엔 | - | 12개월 연속 흑자 |

※ 일본의 2021.4월 對한국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

(對EU)

○ 수출은 자동차(+70.3%), 자동차 부품품(+117.9%), 이륜자동차(+211.6%) 등이 증가하였고, 수입은 유기화합물(▲38.1%) 등이 감소한 반면, 의약품(+30.7%), 가방류(+250.5%), 항공기류(+110.0%) 등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▲1,106억

엔의 적자(22개월 연속 적자)

[對EU]

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
| 수출 | 6,761억 엔 | + 39.6% | 2개월 연속 증가 |
| 수입 | 7,867억 엔 | + 16.6% | 3개월 연속 증가 |
| 무역수지 | ▲ 1,106억 엔 | ▲ 41.9% | 22개월 연속 적자 |

[일본의 2021.4월 對한국 수출입 통계]

□ (수출) 2021.4월 일본의 對한국 수출은 5,174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.6% 증가

○ (감소 품목) 없음 (9개 전 품목 증가)

○ (증가 품목) 식료품(46.6%), 원료품(47.0%), 광물성연료(93.1%), 화학제품(23.0%), 원료별제품(12.1%), 일반기계(21.8%), 전기기기(18.2%), 수송용기기(36.6%), 기타(40.8%)

-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(54.2%), 의약품(28.1%), 플라스틱(17.8%) 등 포함
- 원료별제품은 철광(4.1%), 비철금속(19.4%), 금속제품(10.3%) 등 포함
- 일반기계는 전산기류 부분품(12.3%), 반도체 등 제조장치(49.6%), 금속가공기계(0.7%), 건설용·광산용 기계(20.5%) 등 포함
-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(45.9%), 음향·영상기기(31.8%), 음향·영상기기 부분품(261.4%), 중전기(33.1%) 등 포함
- 수송용기기는 자동차(51.4%), 자동차 부분품(18.4%), 이륜자동차(58.7%), 항공기류(35.4%) 등 포함
- 기타는 과학광학기기(21.2%), 사진용·영화용 재료(8.6%) 등 포함

□ (수입) 2021.4월 일본의 對한국 수입은 2,940억 엔으로 19.4% 증가

○ (감소 품목) 일반기계(-4.1%), 수송용기기(-11.9%), 기타(-1.8%)

- 일반기계는 원동기(-28.8%) 등 포함
- 수송용기기는 자동차(-6.0%), 항공기류(-74.2%) 등 포함

○ (증가 품목) 식료품(5.7%), 원료품(20.5%), 광물성연료(143.9%), 화학제품(22.2%), 원료별제품(13.8%), 전기기기(11.8%)

- 식료품은 어패류(10.7%), 육류(194.1%), 곡물류(28.0%), 과일(24.0%) 등 포함
- 원료품은 비철금속광(264*) 등 포함 *전년 대비 배율
- 광물성연료는 석유제품(146.4%), 액화석유가스(8.8%) 등 포함
-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(83.5%), 의약품(78.4%) 등 포함
- 원료별제품은 철광(13.7%), 비철금속(36.9%), 섬유용 실·섬유제품(8.6%) 등 포함
-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(48.9%), 절연전선·절연케이블(54.0%) 등 포함

3 대외경제 동향

9. 英, '2030년 석탄화력' 전폐 제안

□ 5.20-21 개최 예정인 G7 기후·환경장관 화상회의* 관련, 의장국 영국이 '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전폐' 등 화석연료 이용 규제를 합의문에 포함시키도록 각국에 제안한 사실이 日 정부관계자 취재를 통해 확인됨.

* 일측은 고이즈미 환경대신, 가지야마 경산대신 등이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

○ 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, 영국은 비공식 실무협약에서 '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' 목표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의 배출 감축 목표를 향후 추가적으로 상향조정토록 요구하는 한편, 대량의 CO²를 배출하는 석탄화력에 대해서는 '2030년까지 기설(시설)을 포함해 전폐' 및 해외 화석연료 관련 사업 공적지원 중단을 제안

※ 2020년 각국 천원구성 러비 석탄 비율(IEA): ▲일본 31%, ▲독일 24%, ▲미국 20%, ▲이탈리아·캐나다 7%, ▲영국 2%, ▲프랑스 1%

□ 일본은 2021.4월 '2030년도까지 2013년도 대비 26% 감축' 이었던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'同 46% 감축' 으로 상향조정한다고 표명했으나, 목표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미정임.

○ 또한, 비효율 석탄화력 시설 단계적 폐지 방침 결정(2020.7월)에도 불구하고 CO²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신형 시설은 유지하는 등 석탄화력 계속 방침에는 변경에 없는데, 영국의 제언을 수용하기 어려운 일본이 G7 논의에서 고립될 우려 존재

10. G7, 기업에 기후변화 영향 정보 공개 촉구 방침

□ (G7 방침) G7이 각국 주요 기업에 기후변화가 경영에 미칠 영향을 공개토

록 요구할 방침임이 5.15 확인된바, 2021.6월 G7 재무대신 회의 및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사실상 의무화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중임.

○ G7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온상승 및 자연재해, 탄소세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가 가져올 수익 영향을 기업이 독자 분석하도록 하여 ESG 대응을 촉구할 방침이며, 이는 거액의 투자 흐름을 환경 중시로 변화시켜 금융의 탈탄소화를 추진하려는 의도도 상존

□ (일본 대응) 일본은 도쿄증권거래소가 'Corporate Governance Code' 를 개정해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를 새롭게 요청할 전망으로,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금융청과 함께 정보 비공개 시에는 그 이유를 설명토록 하는 등 사실상 의무로서 자리매김 시킬 계획임.

○ 일본 국내에서는 그간 수백개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(TCFD) 제언에 입각해 자주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왔으나, 도쿄증권거래소 지침 개정을 통해 대상 기업은 약 2천개사로 확대될 전망